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장근영 연구위원

Vol.5 2012. 10.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개요

| 조사목적 |

- ▶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문제와 정책적 과제에 대한 입법부의 의견을 조사하여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반영하고자 함

| 조사대상 |

- ▶ 제 19대 국회의원 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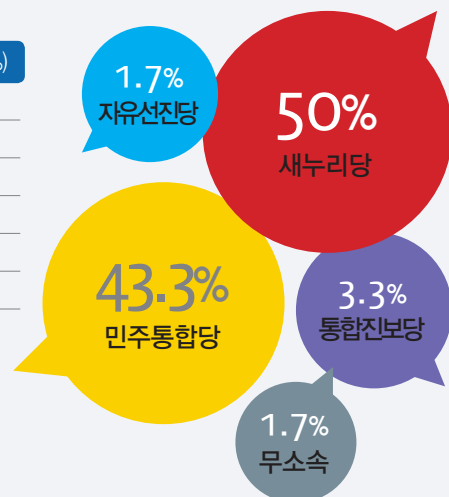
| 조사기간 |

- ▶ 2012년 6월 11일 ~ 22일(11일)

| 표본현황 |

- ▶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40%인 120명이 조사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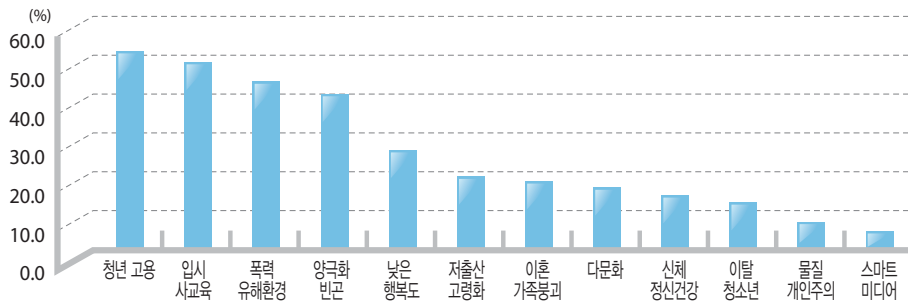
	모집단(명)	표본(명)	응답률(%)
새누리당	152	60	39.5
민주통합당	127	52	40.9
통합진보당	13	4	30.8
자유선진당	5	2	40.0
무소속	3	2	66.7
전체	300	120	40.0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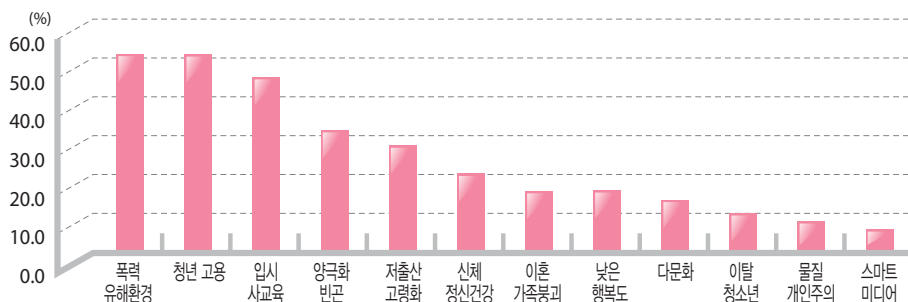


- 조사에 참여한 국회의원 중 50.8%인 61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청소년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선정함. 그 다음으로는 입시경쟁 및 사교육 확대에 따른 불균형적 성장(58명, 48.3%), 청소년 유해환경 및 폭력 심화(51명, 42.5%), 사회 양극화 확대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청소년 증가(48명, 40.0%) 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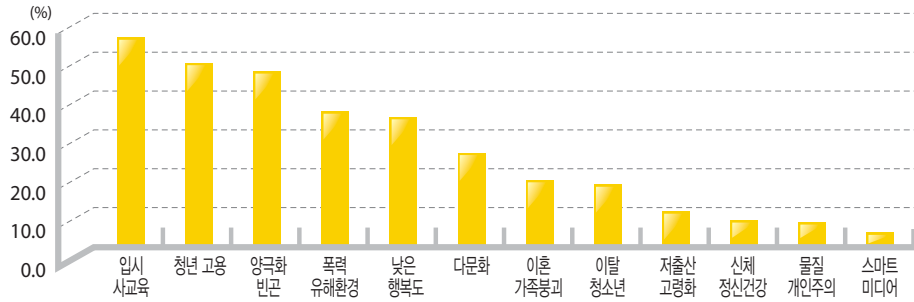


[그림1]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청소년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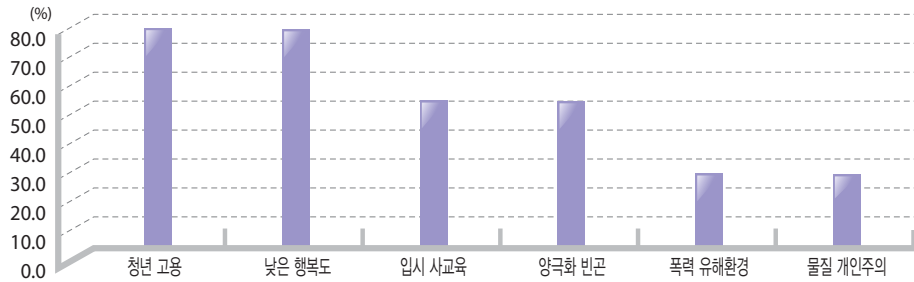
- 각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결과를 비교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정결과는 전체 응답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 반면 통합진보당은 청년고용문제와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문제의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정했으며(75%),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가치관 문제(25%)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했음. 자유선진당은 응답자가 2명으로 선정비율을 비교하기에는 지나치게 사례수가 적어 유효한 추세를 분석하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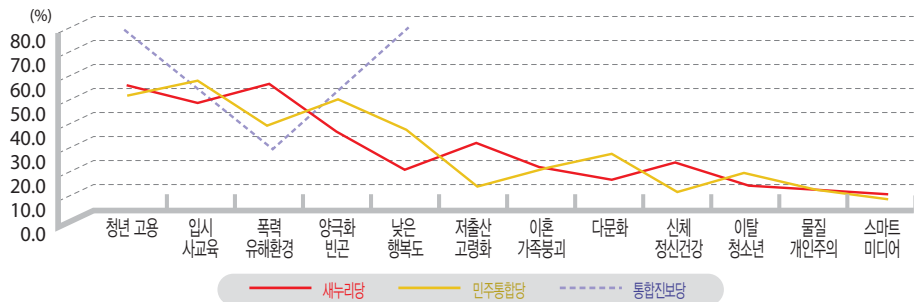
[그림2]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 새누리당



[그림3]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민주통합당



[그림4] 소속정당별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결과: 통합진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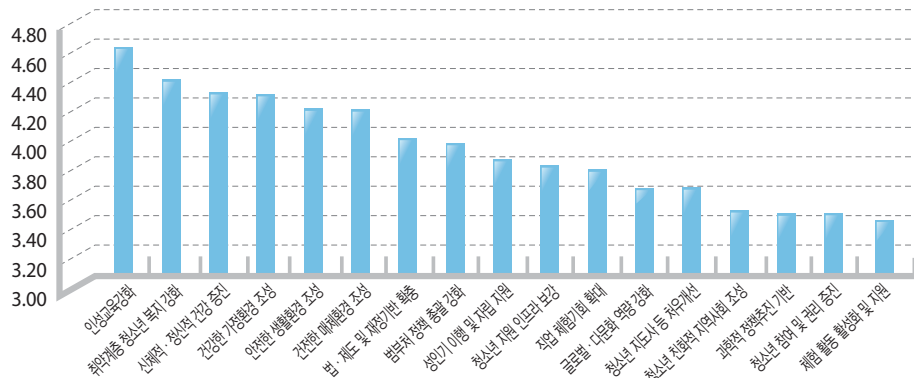
[그림5] 소속정당별 우선순위 선정비율 비교 결과

[표1]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청소년 환경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결과(1-3순위 전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무소속	전체
청년 고용 불안	51.7%	48.1%	75.0%	50.0%	50.0%	50.8%
입시경쟁과 사교육	45.0%	53.8%	50.0%	50.0%	0.0%	48.3%
청소년 폭력 및 유해환경	51.7%	34.6%	25.0%	50.0%	0.0%	42.5%
양극화와 빈곤가정 청소년	31.7%	46.2%	50.0%	50.0%	100.0%	40.0%
청소년의 낮은 행복도	16.7%	32.7%	75.0%	0.0%	50.0%	25.8%
저출산과 고령화	28.3%	9.6%	0.0%	50.0%	0.0%	19.2%
이혼/가족붕괴, 가족돌봄 약화	16.7%	17.3%	0.0%	50.0%	100.0%	18.3%
다문화 청소년 증가	13.3%	23.1%	0.0%	0.0%	0.0%	16.7%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약화	20.0%	7.7%	0.0%	0.0%	0.0%	13.3%
다양한 이탈 청소년	10.0%	15.4%	0.0%	0.0%	0.0%	11.7%
물질주의 개인주의 증가	8.3%	7.7%	25.0%	0.0%	0.0%	8.3%
스마트 미디어 확산	6.7%	3.8%	0.0%	0.0%	0.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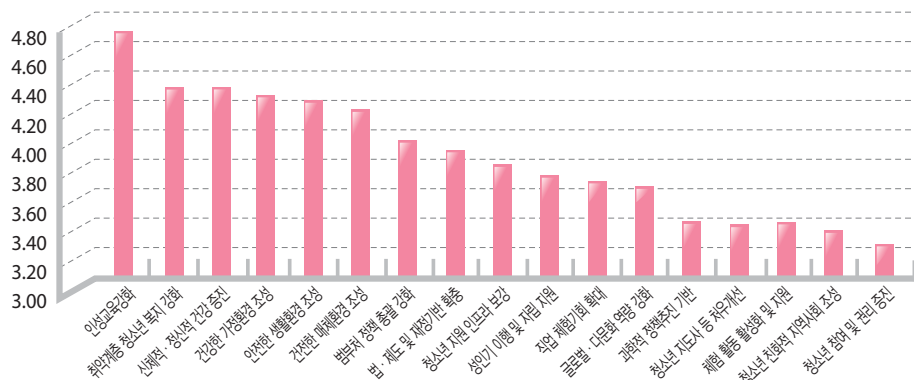
* 가장 중요한 3개로 선정된 비율

- 제19대 국회의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정책 목표별 시급성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평균 4.55점),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평균 4.33점),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증진(4.23점),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4.22점),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4.12점)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정책(3.37점)이나 청소년들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3.41점),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 정책(3.41점),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정책(3.43점),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인력 처우개선(3.58점) 등의 정책안건은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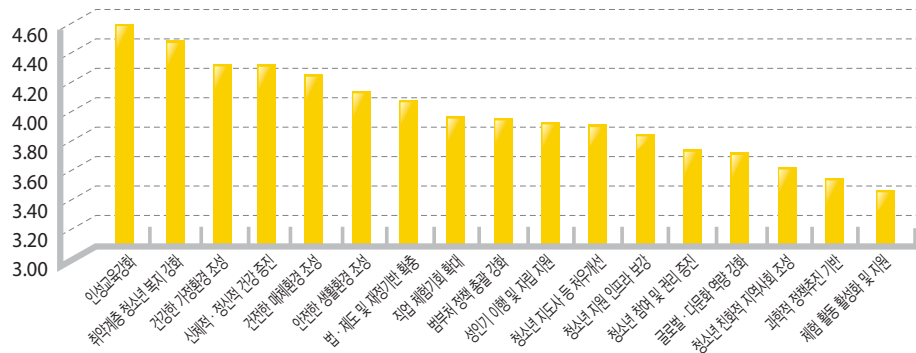


[그림6] 제 19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 정책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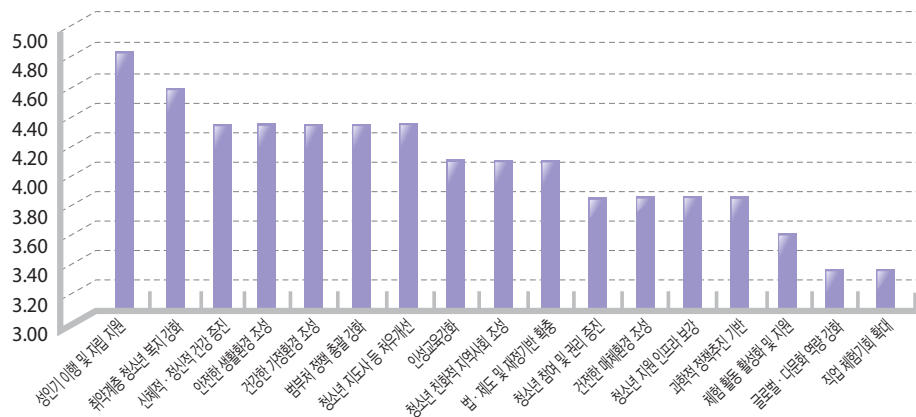
- 정당별 비교 결과, 새누리당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강화에 가장 큰 방점을 둔 반면(4.67점), 청소년 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문제(3.35점)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3.2점)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가장 낮게 평가. 민주통합당은 직업체험 기회 확대 정책의 시급성을 다른 당들에 비해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3.87점),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정책에 대한 시급성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3.63점). 통합진보당은 성인기 이행 및 자립지원 정책의 시급성을 나머지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4.75점), 청소년 지도사 등 청소년 인력의 처우개선 정책(4.25점),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4점), 과학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3.75점),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3.75점) 등의 시급성을 높이 평가.



[그림7]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새누리당



[그림8]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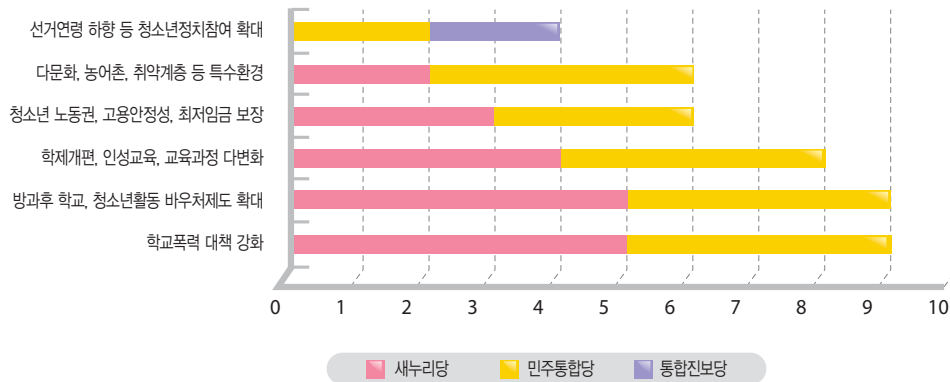


[그림9] 소속정당별 청소년정책목표 시급성 평가: 통합진보당

- 각 의원들이 제19대 국회의정활동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정책을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정책안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강화정책으로서 모두 9명(새누리당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이에 대한 정책안건을 제시함. 또한 방과후 학교 및 청소년활동에 있어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청소년 체험활동 확대정책을 제안한 의원이 역시 9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이었음. 인성교육 중심의 학제개편이나 교육과정 및 기관을 다변화하는 등의 교육정책 개편에 관련된 정책제안은 8명(새누리당, 민주당 각각 4명)이 제시함. 청소년의 고용안정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 제안은 6명(새누리당, 민주당 각각 3명)이 제안함. 다문화배경 청소년이나 농어촌, 취약계층 청소년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 맞는 지원정책을 제안한 의원도 6명(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이었음.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안건을 제안한 의원은 4명(민주당, 통합진보당 각각 2명)이었음. 그 외에는 인터넷 중독치료 2명(새누리당 1명, 민주당 1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정책 2명(새누리당), 청소년들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정책 2명(민주당)으로 나타남.



[그림10] 임기 중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진 청소년정책 안건



[그림11] 기타 개별의원별 정책 제안: 소속정당별 비교

[표2] 기타 개별의원별 정책 제안 내용 요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계
학교폭력 대책 강화	5	4		9
방과후 학교, 청소년활동 바우처제도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 체험 활동 확대	5	4		9
학제개편, 인성교육, 교육과정 다변화	4	4		8
청소년 노동권, 고용안정성, 최저임금 보장	3	3		6
다문화, 농어촌, 취약계층 등 특수환경 청소년 지원	2	4		6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정치참여 확대		2	2	4
인터넷 중독 치료	1	1		2
청소년 유해환경	2			2
청소년 생활문화공간 조성		2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